

중·고령자의 자산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이형하^{1*}, 송현주², 윤정희², 이근형²

¹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²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The Relationship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old aged' Asse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Hyoung-Ha Lee^{1*}, Hyun-Ju Song², Jung-Hee Yun², Geun-Hyoung Lee²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²Master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고령자, 자산효과이론, 자산, 우울, 삶의 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elderly (45 years old or older).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from the KReIS 5th Main Survey (2013). SPSS 21.0 and AMOS 25.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nalysi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ssets of middle-aged and old age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the depre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assets of the elder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life. Third, the effects of asset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were found to be mediated by depression of middle-aged peop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middle age generation's asset formation support program, the universal implementation of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generation, and the gradual increase in benefits.

Key Words : Middle-old Aged, Assert Effect Theory, Asset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This paper was expanded after being presented as a poster paper at th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in Spring 2019.

*Corresponding Author : Hyoung-Ha Lee(hhle62@kwu.ac.kr)

Received September 4, 2019

Revised October 31,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한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년층의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와 이미 노인가에 접어든 은퇴노인의 경우도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자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까지의 근로경력과 상관없이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이들 역시 충분한 자산을 비축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빠른 은퇴와 자녀의 교육과 혼인 비용 등의 요인으로, 자산의 감소는 중년기 때 이미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2].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자산을 살펴보면, 30대미만에서는 평균 9,906만원, 30대 31,039만원, 40대 44,322만원, 50대 48,021만원, 60대 41,202만원을 기록하여, 60대에 이르기 전에 이미 자산규모의 감소가 시작함을 알 수 있다[3].

중고령자들은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이전보다 더 낮은 비정규직 경제활동 참여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 안정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은퇴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 구조와 자산빈곤의 문제는 결국 중고령자에게 심리·정서적인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즉, 중고령에게는 소득과 자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상실은 개인에게 무력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게 한다. 특히,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자산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빈곤과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도 유사하다[4]. 왜냐하면, 사회적 원인론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위층에 따라붙은 삶의 역경들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등이 계층적 지위와 정신건강 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5].

자산효과이론[6]에 의하면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 향상, 개인의 미래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 우울을 완화시켜 주고 자아존중감의 유지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한다. 자산은 유형, 무형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로서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장소이며, 이러한 자산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자금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소득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7].

자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계층적 관점, 소비주의적 관점 및 발달론적 관점이다[8]. 특히, 여기서 주목할 관점은 사회계층 관점이다. 사회계층 관점은 자산이 소득과 비교해 장기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며 노인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산은 소득빈곤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 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중고령자 자산의 영향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고령자의 자산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우울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산효과이론

생애주기가설(the life-cycle hypothesis)과 완충재고이론(buffer-stock theory)을 기반으로, Nam, Huang, Sherraden[9]은 자산을 미래 소비를 위한 창고로 정의하였다. 이 가설과 이론 모두 인간이 가능한 최상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짐을 가정한다[10]. 자산효과이론은 Sherraden[6]에 의해 언급된 이론으로, 자산은 경제 위기가 낳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며[11], 가정해체[12], 가구스트레스[13] 그리고 부부갈등[14]으로부터 보호한다. Sherraden[6]은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

산은 축적되어 가치저장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3].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한 자산빈곤에 대한 기준과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 남상호[15], 이영라·이숙중[1]는 자산빈곤의 개념을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였고, 유태균 외[16]는 일정기간 동안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데 있어 자산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자산의 중요성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즉, 20세이상 가구의 순자산과 가족갈등수준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 연구[17], 중고령자의 자산(부동산 자산)이 삶의 만족 영향에 관한 연구[18], 전기-중기-후기 고령자의 개인순자산과 가구총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금융 자산, 부동산자산)과 소득(부동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이 삶의 만족 영향에 관한 연구[20], 노인의 자산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1,22]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23] 등이 있으며, 노인의 자산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10]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20세이상의 가구의 자산은 우울과 가족갈등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령자와 노인의 자산은 삶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자산, 우울, 삶의 만족 관계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24], 노인의 자산이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가구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25], 자산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연구[26]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산이 우울에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산과 사회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유사한 연구는 노인가구의 자산수준과 우울 간의 사회적 관계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한 연구[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을 서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규정하여[27] 사람의 수, 상호작용 접촉빈도, 서로 아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중고령 여성의 우울증상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28]에서는 중년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이 우울 증상에 더 취약하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호[29]의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 간의 중단적 연구에서 노년기 우울과 생활만족도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우울의 예방이나 감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거나 그 반대의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개입은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바, 제3의 공통요인(예: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입을 통해 우울을 낮추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자산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자산효과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효과이론을 토대로 중고령자의 자산수준, 우울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고령자구의 자산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 중고령자의 자산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 :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4 :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대,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소득)은 우울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이 우울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며 현재까지 6차(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

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를 사용한 이유는 2013년 5차 본조사에서 1955년~1962년생 가구원이 있는 1,201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한 첫 번째 조사이고, 원표본 유지율이 100%임을 고려하였다.

KReIS 5차년도 본조사는 조사표 별로 응답자가 다른데, 가구용 조사표는 원칙적으로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 중 가구의 경제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응답받았다. 개인용 조사표는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가 응답하였는데, 50세 이상 가구원이면 모두 조사했으며, 50세 미만이라도 50세 이상인 가구원의 배우자는 조사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8,411명의 개인을 조사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데이터는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은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8,058명이었다.

3.2 변인의 측정도구

주요 분석변인은 독립변인으로 총순자산, 매개변인으로 우울감, 종속변인으로 삶의 만족을 분석할 것이다. 순자산은 자산(현재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부채 잔액 및 원리금 상환금)를 차감하고 남은 자산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부터 개인조사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측정할 우울 및 불안척도는 Derogatis[30]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 SCL-90-R을 김광일 등[3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총 9가지 차원의 정신진단검사 목록 중 우울을 측정하는 13문항과 불안을 측정하는 10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32]. 4차년도부터는 Radloff[33]의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번안한 조맹제, 김계희[34]가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개의 부정문항과 3개의 긍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총 6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의 신뢰도는 $\alpha=.929$ 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는 '생활전반',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로 총 12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의 신뢰는 $\alpha=.838$ 로 나타났다.

통계변인으로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학

력, 건강상태, 가구원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3.3 분석절차와 방법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우울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득과 자산변인은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않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변인은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3.4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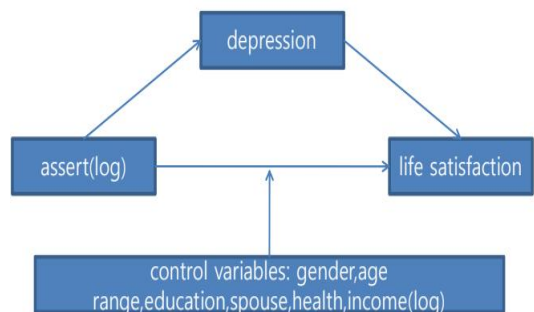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통계인구학적특성은 아래와 같다 (Table 1 참조). 성별은 여성이 57.9%로 남성보다 1.38배 높고, 연령대는 중년(45~64세)이 50.9%로 고령(65세이상)보다 1.04배 높고 평균연령은 64.46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이하가 58.3%로 고등학교졸업보다 1.40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이 70.1%로 좋지않음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은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않아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

값, 첨도, 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울감은 평균 9.099 (표준편차 8.587)로 낮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평균 28.123(표준편차 5.806)로 중간경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1. Statistic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Frequency %, (people numbers)						Remarks
	male			female			
gender	42.1%(3,389)			57.9%(4,669)			
age range	middle age 45-64 years old			old age 65 years old or older			average 64.46세
	50.9%(4,089)			49.1%(3,96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and above				
	41.0% (3,304)	17.3% (1,395)	41.7% (3,352)				
marital status	spouse			divorce, bereavement, single			
	74.6%(6,013)			25.4%(2,045)			
health	not good		usually	good			
	29.9%(2,368)		27.8%(2,206)	42.3%(3,357)			
division	at least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dwarf	Kurtosis	
income (thousand won)	0.00	364,200	13,539	19,433	4,396	46.03	
income log	2.30	12.81	8.93	1.35	-4.38	-1.93	
total assets (thousand won)	0.00	6,180,000	126,502	2.61	7,696	110.47	
total asset log	4.61	15.64	10.95	1.83	-846	.269	
total Dept thousand won	0.00	2,950,000	12,812	60,798	18,989	725.64	
total dept Log	5.70	14.90	10.45	1.38	-504	.457	
net assert (thousand won)	0.00	6,060,000	113,689	2.32	7,521	110.41	
net assert log	4.61	15.62	10.86	1.81	-834	-.263	
depression	0.00	60.00	9.099	8.587	1.517	2.909	
life satisfaction	4.00	45.00	28.123	5.806	-112	-176	

4.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연로그를 취한 순자산은 우울감($r=-.15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삶의만족($r=.229, p<.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 VIF값이 1.269~1.881로 모두 1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038**	1							
(3)	-.300***	-.478***	1						
(4)	-.292***	-.294***	.354***	1					
(5)	-.453***	-.394***	.465***	.156	1				
(6)	-.146***	-.393**	.368***	.254***	.367***	1			
(7)	-.419***	-.045	.267***	.077	.453***	.139	1		
(8)	.110***	.231***	-.240*	-.237*	-.262*	-.421*	-.153*	1	
(9)	-.232***	-.342***	.358***	.510***	.403***	.523***	.229***	-.486***	1

***p<.01, **p<.001

(1) gender, (2) age group, (3) education level, (4) marital status, (5) income log, (6) physical health, (7) net assets log, (8) depression, (9) life satisfaction

4.3 경로분석

본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Fig. 2와 Table 3 참조). 분석결과 순자산로그는 우울감($B=-.313,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고, 순자산로그는 삶의 만족($B=.219,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순자산은 우울감($B=-.160, p<.001$)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에 삶의 만족은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인인 연령대($B=.231, p=.532$)를 제외하고 우울감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고, 교육수준($B=-.056, p=.170$)을 제외하고 삶의 만족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일 때, 우울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은 낮아졌으며, 배우자가 있을 때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소득(로그)가 높아질수록 우울

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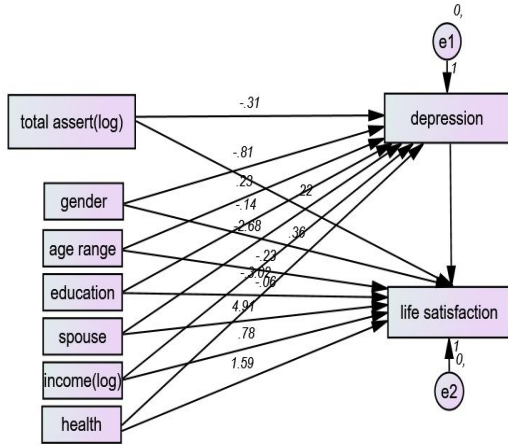


Fig. 2. Path analysis

Table 3. Path analysis result between asse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Estimate		S.E.	C.R.	P	Adopted
				B	B				
main variable effect	depression	←	net asset	-.313	-.069	.054	-5.833	***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160	-.247	.006	-26.655	***	○
	life satisfaction	←	net asset	.219	.075	.029	7.678	***	○
Control variable effect	depression	←	gender	-.810	-.048	.174	-4.665	***	○
	depression	←	age range	.231	.014	.172	1.348	.532	×
	depression	←	education	-.141	-.022	.066	-2.141	*	○
	depression	←	marital status	-2.682	-.140	.197	-13.611	***	○
	depression	←	income log	-.625	-.101	.068	-9.203	***	○
	depression	←	health	-3.023	-.353	.088	-34.299	***	○
	life satisfaction	←	gender	.364	.033	.092	3.937	***	○
life satisfaction	←	age range	-.234	-.022	.091	-2.574	*	○	
life satisfaction	←	education	-.056	-.014	.035	-1.600	.170	×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life satisfaction ← marital status	4.906	.397	.106	46.365	***	○			
life satisfaction ← income log	.780	.196	.036	21.633	***	○			
life satisfaction ← health	1.592	.288	.050	31.731	***	○			

*p<.05, ***p<.001

4.4 우울의 매개효과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순자산(로그)이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나타난 총효과가 .269, 직접효과 .219, 간접효과 .050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순자산(로그)과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감은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순자산(로그) 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이 높아지며, 그리고 순자산(로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요인을 거치지 않고도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4. Analysis of total effect of assets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net asset(log) →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69***	.219***	.050***

***p<.001

또한, 매개효과 검증의 다른 방법인 Sobel 테스트 결과 Z=5.664(p<.01)로 나타나 순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고찰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5, 10]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중고령자의 우울감은 삶의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고령 여성의 우울증상이 많이 보일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7] 결과와 맥을 같이

이하고 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8], 고령자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96],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0],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1, 22]와도 일치하고 있다. 넷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세이상 가구주의 순자산과 가족갈등수준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35], 자산이 가족갈등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할수록 가족갈등수준이 높아진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은 감소하고 삶의 만족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교육과 은퇴준비를 위한 금융·재무설계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 전 세대와 은퇴 후 세대간의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고령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개입[36]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활성화, 사회관계망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37]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산 축적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중고령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산유형별 형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산효과이론[6]에 의한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을 낮게 하고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를 횡

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과 신체적 건강 및 우울과의 관계를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관계 만족도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에 가족관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Y. R. Lee & S. J. Jong. (2018).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and the Income Poverty of the Elderly – Focusing on Baby Boomers and Liberation and Korean War Gener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57(2), 111–157. DOI : 10.22418/JSS.2018.12.57.2.111
- [2] Statistical Office. (2014).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Panel) Data.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 dex.board?bmode=read&aSeq=372146
- [3] S. H. Lee & C. K. Han. (2016). Health effects of older adults' assets: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6th National Elderly Panel Guarantee Conference Materials Collection*. 135–154. <https://www.koweps.re.kr:442/research/thesis/view.do>
- [4] S. R. Lee & S. A. Lee. (2010). Poverty Status Transition and Mental Health: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Poverty Status Transi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4), 277–311. DOI : 10.22418/JSS.2018.12.57.2.111
- [5] J. Y. Kim & C. K. Han. (2017).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sset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4), 5–31. <http://search.koreanstudies.net/thesis/thesis-view.asp?key=3569607>
- [6] M. Sherraden.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DOI: 10.1111/j.1741-3729.2010.00611.x.
- [7] S. O. Kang & C. K. Han. (2018). A Study on Effects of Youth Householder's Assets on Life Satisfaction: Test of a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4), 195–220. DOI: 10.16999/kasws.2018.49.4.195
- [8] S. M. McKernan & M. Sherraden. (2008).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DOI: 10.1080/10705422.2011.625394
- [9] Y. Nam, J. Huang & M. Sherraden. (2008). Asset definitions, in S. McKernan & M. Sherraden, (Eds.),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1-31. Washington, D.C.:The Urban Institute Press.
DOI: 10.1080/10705422.2015.1091421.
- [10] D. Y. Won, J. H. Noh & Y. S. Shin. (2017). Assets of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with their Children Not Living Togeth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7(3), 687-70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1883>
- [11] C. K. Han & S. J. Kim. (2014). Assets and a wife's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4(4), 251-264.
DOI: 10.1080/02185385.2014.925817
- [12] J. Dew. (2008a). Debt Change and Marital Satisfaction Change in Recently Married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57(1), 60-71.
DOI: 10.1111/j.1741-3729.2007.00483.x.
- [13] J. Dew. (2008b). *Marriage and finance*, In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DOI:10.1007/978-0-387-75734-6_20
- [14] J. Dew & J. Dakin. (2011). Financial disagreements and marital conflict tactic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23-42.
<https://doi.org/10.4148/jft.v2i1.1414>
- [15] S. H. Nam. (2011).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ow-Income Asset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90, 1-8.
UCI(KEPA)I410-ECN-0102-2018-300-000221983
- [16] T. K Yoo, S. M. Kang & C. M. Jeong.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the Poverty Exit and Entry of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4), 37-54.
UCI(KEPA)I410-ECN-0102-2015-300-002169508
- [17] S. J. Maeng, E. K. Kim & C. K. Han. (2019). The effects of assets on family conflic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0(2), 179-206.
<http://search.koreanstudies.net/thesis/thesis-view.asp?key=3689920>
- [18] D. H. Cho. (2015). Analysis on the determinant of life satisfaction by using panel data. *Applied Economics*, 17(1), 5-27.
<http://www.riss.kr/link?id=A103481740>
- [19] Y. J. Im. (2017). Factors Analysi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old Aged : Focused on Three Groups by the First Period, the Middle Period and the Last Period by Age.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7(1), 85-121.
<http://www.riss.kr/link?id=A103302901>
- [20] S. R. Kang & E. Y. Choi. (2016).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Its Previous and Next Generations -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Household Asset and Income on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2(2), 1-30.
<http://www.riss.kr/link?id=A102022516>
- [21] M. S. Jeon & M. O. Tae. (2016).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Elderly's Satisfaction with Life - Mediating Effect of the Elderly's Leisure Participa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6), 323-333.
DOI : 10.5392/JKCA.2016.16.06.323
- [22] C. K Han & S. I. Hong. (2011). Asset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s Among Korean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2), 225-240.
DOI: 10.1007/s11205-010-9613-8.
- [23] H. J. Choi. (2016). *The effects of assets on successful aging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24] S. H. Lee. (2016). *The effects of assets on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 focusing on depression*. Thesi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14017515>
- [25] D. W. Rothwell & C. K. Han. (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Family Stress Among Low 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 59(4), 396-407.
DOI: 10.1111/j.1741-3729.2010.00611.x.
- [26] A. R. Choi. (2011).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tion factor of quality of life for senior between Korea and Japan : based on economical, so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12493822>
- [27] S. D. Chung. (1999). Network 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 177-205.
<http://www.riss.kr/link?id=A82533656>
- [28] S. Y. Park & S. Y. Park.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Ecological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129-163.
<http://www.riss.kr/link?id=A105987158>
- [29] K. H. Kim.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People: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0, 111-138.
DOI : 10.17997/SWRY.60.1.5.
- [30] L. R. Derogatis. (1973).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ogy Bulletin*, 9, 13-28.
[http://www.scirp.org/\(S\(i43dyn45teexjx455qlt3d2q\)\)/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1237451](http://www.scirp.org/(S(i43dyn45teexjx455qlt3d2q))/reference/ReferencesPapers.aspx?ReferenceID=1237451)
- [31] K. I. Kim, J. H. Kim & H. T. Won. (1984). Summary of Simple Mental Diagnostic Test. Seoul Central

Publishing House, Seoul.

- [32] National Pension Service. (2015).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User's Guide*. 129.
- [33]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urement*, 1,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34] M. J. Cho & K.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http://www.riss.kr/link?id=A105298943>
- [35] S. J. Maeng, E. K. Kim & C. K. Han. (2019). The effects of assets on family conflic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0(2), 179-20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89920>
- [36] H. J. Ju & H. K. Kohg.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2), 243-254. DOI: 10.14400/JDC.2019.17.2.243
- [37] S. K. Kim. (2019).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77-88. DOI : 10.14400/JDC.2019.17.5.077

윤 정 희(Jung-Hee Yun)

[학사학위]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
- E-Mail : jhyun3636@hanmail.net

이 근 형(Geun-Hyoung Lee)

[학사학위]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 E-Mail : lghlike7078@hanmail.net

이 형 하(Hyoung-Ha Lee)

[장학]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hhlee62@kwu.ac.kr

송 현 주(Hyun-Ju Song)

[학사학위]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shj2835@naver.com